"쿠데타 표현 금지"…크렘린, 반란 사태 진화 안간힘

방송사에 "전투 파괴 현장 사진 내보내지 말라" 보도지침 내려

프리고진 발언 무시 지시도…주요 신문들은 1면에 탱크 사진

러시아 당국이 무장 반란 사태 이후 동요하는 여론을 진정시키기 위해 자국 언론에 '쿠데타'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게 하는 등 보도지침을 하달하고 있다고 2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가 보도했다.

한 러시아 방송 채널의 모스크바 스튜디오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6일 크렘린궁은 '쿠데타'와 '폭동' 등 단어 대신 '반란 시도'를 사용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또한 반란을 주도한 러시아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과 용병들에 대한 비판을 피하고, 전투로 인한 파괴 흔적을 방송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 밖에 NTV와 채널1 등 방송 채널은 바그너 그룹 공습 과정에서 사망한 러시아군 조종사를 언급해선 안 된다는 지침을 전달받았다고 한다.

프리고진이 반란 이후 첫 발언을 했을 때는 언론사에 "이를 무시하라"는 권고가 내려지기도 했다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한 언론사 관계자는 "(당국이) 처음엔 지도부와 합의해 이 주제를 다룰 수 있다고 했다. 그 뒤엔 그래선 안 된다고 했고, 그다음엔 파괴된 모습을 담은 사진 없이 다루라고 했다"며 "모두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대형 방송 채널 직원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는 전문가 패널을 초청해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전문가들은 현재로선 많은 것을 말할 수 없고 우리도 물어볼 수가 없다"며 "무슨 일이 벌어졌고 어떤 영향이 있을지 분석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러시아 주요 신문들은 무장 반란을 주요 이슈로 다루며 사건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특별군사작전'에 미칠 영향을 집중 보도했다.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는 '무장해제된 반란'을 제목으로 "바그너 그룹의 반란이 예고 없이 시작됐듯이 예기치 않게 끝났다"고 전했다. 관련 기사는 1면 전면에 이어 3면에서도 이어졌다.

타블로이드 신문 콤소몰스카야 프라우다는 바그너 그룹이 장악했던 로스토프나도누의 학생들이 용병들의 군사 장비를 배경으로 서있는 사진을 1면에 담았다. 기사 제목은 '우리나라가 무장 폭동 시도에서 살아남은 방법'이었다.

이어 "서방이 프리고진의 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등 미국에 책임을 돌리는 기사를 포함해 총 5개 면에 걸쳐 바그너 그룹의 반란을 다뤘다.

반면 모스콥스키 콤소몰레츠는 1면에 '프리고진은 떠나지만 문제는 남을 것이다'는 다소 비판적인 제목의 기사를 배치했다.

신문은 "러시아는 빠르게 나락에 다가갔지만, 그에 못지않게 빠르게 나락에서 멀어졌다. 알렉산드르 루카셴코(벨라루스 대통령)에게 감사드린다!"고 적기도 했다.

더타임스는 다만 일간 RBK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배달이 중단됐고, 아르구멘티 네델리 등은 이 사안을 전혀 다루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이르면 내달 우크라 평화회담

러 제재 미참여국도 포함

지난 주말 덴마크에서 우크라이나와 미국, 독일은 물론 브라질과 남아공, 인도 등이 극비리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방안에 대해 논의한 가운데, 이르면 내달 우크라이나 평화회담이 개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독일 ARD방송은 브뤼셀에서 입수된 정보에 따르면 지난 24~25일(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극비리에 열린 우크라이나 평화회의에 이어 이르면 7월에 공식 평화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보도했다.

코펜하겐에서 열린 회의에는 우크라이나와 최대 지원국인 미국과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을 비롯해 주요7개국(G7) 외에 유럽연합(EU)과 북미에서는 물론,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대표자들이 참석했다고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은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화상으로, 옌스 플뢰트너 독일 총리 외교보좌관은 직접 참석했고, 중국은 회의에 초대됐지만, 참석하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회의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평화회담 제의에 앞서 종전을 위한 합의의 근간이 될 원칙에 대한 동의를 얻는 것을 목표로 했다. /연합뉴스

클림트 마지막 초상화

1413억원에 낙찰

유럽 경매 최고가 기록

오스트리아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가 마지막으로 남긴 초상화 '부채를 든 여인'이 유럽 내 예술작품 경매 최고가에 낙찰됐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경매사 소더비는 이날 영국 런던에서 열린 경매에서 작품이 8530만파운드(약 1413억원·수수료 포함)에 낙찰됐다고 밝혔다.

최종 구매자는 홍콩 수집가를 대리해 경매에 참여한 아트 어드바이저 패티 웡이라고 소더비는 전했다.

앞서 유럽 경매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예술작품은 2010년 1억430만달러(약 1355억원)에 낙찰된 알베르토 자코메티의 조각 '걷는 사람 Ⅰ'이었다.

회화 작품 가운데서는 2008년 8040만달러(약 1044억)에 낙찰된 프랑스 화가 클로드 모네의 '수련'이 유럽 경매 사상 최고가였다.

'부채를 든 여인'은 이들 기록을 모두 깼으며 전 세계 경매에 나온 클림트 작품 가운데 가장 비싸게 팔린 작품으로도 기록됐다.

소더비에 따르면 이 작품은 클림트의 마지막 초상화로, 그가 작고한 1918년 그의 작업실 이젤 위에서 발견됐다.

미술 전문지 아트넷에 따르면 이 작품은 클림트의 후원자이자 친구였던 엘빈 볼레가 소유하다 수집상을 거쳐 지난 1994년 경매에서 1200만달러(약 156억원)에 못 미치는 가격에 팔렸다./연합뉴스

세계 마약 퇴치의 날…프놈펜 마약 공개 소각 유엔이 제정한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을 기념해 28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마약 공개 소각 행사가 열린 가운데, 군경들이 불타는 마약 더미 앞에서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유엔은 1987년 6월 26일을 '세계 마약 퇴치의 날'로 지정했다. /연합뉴스

日원자력규제위, 사흘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전 검사

IAEA 최종보고서 내달 4일 공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 설비를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검사를 실시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원자력규제위원회는 검사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확인되지 않으면 도쿄전력에 검사 증서를 교부할 방침이다. 이 증서가 발행되면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가능해진다.

앞서 야마나카 신스케 원자력규제위원장은 지난 24일 후쿠시마 제1원전을 시찰한 뒤 "큰 과제 없이 착실히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어 이번 검사에서도 합격점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도쿄전력은 전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설비의 가동 상황을 살피는 시운전을 종료하면서 설비 공사를 모두 완료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 계획을 검증해 온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조만간 공개할 최종 보고서에서도 우려할 만한 지적이 제기되지 않으면 예고한 대로 올여름에 오염수 방류를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IAEA 최종 보고서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도쿄 총리관저에서 면담할 것으로 알려진 내달 4일께 공개될 것이라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요미우리는 "IAEA가 지금까지 방류 방법 등이 타당하다고 평가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슷한 견해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오염수 방류 시점은 아직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으며, 기시다 총리가 방류에 반대하는 원전 인근 어민에 대한 설득 작업과 주변국 반응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요미우리는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가 지난 22일 채택한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에서 '단호히 반대'가 빠진 점에 주목했지만, 어민들은 지속해서 반발하고 있다./연합뉴스

"데스밸리보다 더 덥다"

美텍사스 연일 '살인폭염'

미국 텍사스에서 2주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지역이 지구상에서 가장 더운 곳 중 하나인 캘리포니아주의 사막 지대 '데스밸리'(Death Valley)보다 더 기온이 높아졌다고 기상청(NWS)이 경고했다.

텍사스주 샌앤젤로 지방 기상청은 26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오늘 샌앤젤로 기온이 지난주(20~21일) 두 차례에 걸쳐 세운 역대 최고 기온인 화씨 114도(섭씨 46도)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샌앤젤로 기상청은 전날 "지금 우리가 데스 밸리보다 더 더운데, 콘초밸리(텍사스주)가 올해 6월의 새로운 데스밸리라고 해도 될까요?"라며 "이 더위와 습도는 솔직히 죽음처럼 느껴진다"고 트위터에 게시하기도 했다.

이 트윗 글이 게시된 25일 낮 데스 밸리는 37도였고, 샌앤젤로는 43도를 기록해 미국에서 가장 더운 곳으로 꼽혔다.

데스 밸리는 1913년 섭씨 56.6도를 기록해 지구상의 최고 기온으로 기네스 세계기록에 등재됐으며, 2020년 8월에는 두 번째로 높은 54.4도를 기록한 바 있다. 실제로 지난 23일에는 텍사스주 빅벤드 국립공원에서 48도가 넘는 고온에 등산하던 10대 소년과 이 소년을 구조하려던 아버지가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텍사스주 오스틴에서는 지난 2주간 폭염 관련 응급상황에 대응한 출동이 100여건에 달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연합뉴스